

독자권익위원 칼럼

최충명

허그맘허그인심리상담센터
광주무등점 원장

작년 말부터 우리는 매일의 일상이 연속적인 이벤트라는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 요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변론)을 지켜보다가 하얼빈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이 열렸었는지도 몰랐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또한 얼마 전 대선에서 발생한 초등교사에 의한 학생 살인사건 역시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갈 뻔 하기도 하였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것을 보며 체감하고 있다. 중소 기업들은 재원을 계획했다가 상황을 보면서 재원을 늘리자는 태세로 돌아서면서 가뜰이나 어려운 채용 시장이 열어불고 있다. 이런 현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은 어떨까. 무엇 하나 좋을 것 없는 이 상황에서 더 매마르고 힘들며 우울하지 않을까 심리상담 전문가로서 걱정이 된다.

사람이 우울하고 힘들어지면 예민해진다. 그래서 감정 기록도 생기고 남 탓도 하게 되며 외부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이게 된다. 또한 외부세계 정보에 대해서 논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 스스로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가장 문제는 자신에 대한 돌봄과 통찰 능력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이다.

기고

김주용

전남도의원



지난 1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액은 2024년 509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2022~2023년의 수출 감소세로 인한 경쟁력 우려를 해소했다. 그 결과, 세계 수출 순위 6위에 올라, 정치·경제적 불안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이 순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한국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국가 중 수출 순위 5위인 네덜란드의 존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으며,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나라도 아닌 네덜란드가 어떻게 세계 5위 수출국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더더욱 놀라운 점은 네덜란드 주요 수출 품목이 농축산물이라는 점이다. 네덜란드는 2024년 한 해 동안 6151억 달러를 수출하며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했다. 제조업이 주력 산업인 한국과 비교하면, 오직 농축산업으로 이룬 이 성과는 더욱 인상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네덜란드의 농축산물 수출 성공 사례는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역할을 하는 필자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네덜란드의 농업이 우리 전남 농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

거짓말 같은, 하루살이 같은 일상

무과아심(無愧我心)이라는 사자성어는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한다’는 뜻으로, 남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명나라 정치가이자 시인 유기(劉基)가 언급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다만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구할 뿐이다.(豈能盡知人意 但求無愧我心)’에서 기인했다.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면 힘들고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상황에서 ‘내 스스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고개를 들어 외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과 생각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의 자기통찰 훈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자존감이 높아야 가능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무과아심(無愧我心)의 마음 변화를 제어하는 기능이 애당초 구비되지 않았거나 단단히 고장난 경우가 아닌가 싶다.

필자는 앞선 칼럼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대해 몇 번 언급한 적이 있다.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통찰능력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에 대한 통찰 능력이 있다면 우선 대부분의 일에 남 탓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자신이 계엄을 하게 된 이유 변론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폭주를 막고자’, ‘경제가 안 좋아서’, ‘경각심을 유발하기 위해’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남 탓’을 주요 이유로 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주어가 없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잘못 되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현재 얼마나 큰 좋은 상황인지도 파악

하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아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는 안 좋아진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한 계엄은 자신이 계엄을 한 것이 아니고 다 부하들이 이렇게 저렇게했고 자신은 오직 ‘나라 걱정’만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누가 계엄을 선포하고, 국무회의로 추정되는 회의를 주도했으며, 무엇보다 이렇게 나라가 전반적인 영역에서 파탄의 지경에 이르도록, 자신이 걱정할 만큼의 문제 상황이 되도록 했는지 생각 해봤다면 그 책임이 본래적으로 자신으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아만 하지 않을까 한다.

리더란 모를지기 부정적인 상황에서 판단능력이 좋고 결단력이 좋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 좋았을 때는 히틀러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네로 황제, 나폴레옹과 히틀러 등 독재자의 예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리더란 자신의 판단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통찰하며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곱씹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높은 자존감과 올바른 도덕성이 필요하다.

윤석열의 남 탓을 실세 없이 보고 듣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지치고 우울하며 한숨을 쉰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은 서로 탓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으며 잘 버티고 있다. 다만 지친 국민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소망한다. 대한민국은 소망으로 이룬 국가이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농업 성공에서 전남의 미래를 찾다

해보도록 하겠다.

네덜란드의 사례가 전남 농업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기술 중심의 농업 혁신과 전략적 품목의 집중이다. 전남은 한국 최대의 농·수산물 기반 지역으로, 전곡 쌀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한우, 김, 굴 등의 대표적 특산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보다는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네덜란드는 스마트팜과 정밀농업을 활용해 연중 안정적인 생산을 유지하며, 품질을 극대화하고 있다. 반면, 전남 농업은 기후와 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생산성과 유통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접근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특정 품목을 집중 육성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쳤다.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딸기, 치즈, 육류와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을 선정해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고, 글로벌 수요에 맞춰 생산과 수출 체계를 최적화했다. 그러는 동안 전남의 농산물은 다품종 생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정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부족했다. 이제라도 전남도 체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남의 대표적 특산물인 김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가공식품으로의 전

환율이 낮고 수출 전략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네덜란드처럼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더불어 농업과 물류의 연계 전략도 주목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로테르담 항을 활용해 생산된 농산물을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반면, 전남의 농산물 유통망은 도내 수요 및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되어, 국제 시장과의 직접 연결이 미흡하다. 전남이 글로벌 농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국제무역항인 광양항과 목포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와 유통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농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성공 사례는 전남 농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생산 기술을 혁신하고, 특정 품목에 집중하며, 유통과 물류를 효율화하는 것이 전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천연임물적으로 농업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전남 농업을 산업화하고 경쟁력을 갖춘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네덜란드의 성공 요인 탐구는 전남의 농업 또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희망을 엿보이게 했다. 필자는 본 고를 빌려 도민들에게 네덜란드의 성공 사례를 발판 삼아, 전남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독자투고

교묘해진 스미싱 주의해야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이버 범죄를 말한다.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배송 사칭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 발생했다. 또 택배배송 관련 문자 발송 후에도 메신저 대화 유도를 통해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등 문자사기 유형도 지속 발견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예방법을 숙지해 스미싱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먼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문자 메시지를 통해 요구되는 개인정보 입력을 피하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 끝으로 의심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센터(118)로 신고해야 한다.

스미싱은 간단한 실수로도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인 만큼 개인의 경각심과 보안 조치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니 예방법을 지켜 피해 당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전병진 여수경찰서 대경도지원센터

OPINION

2025년 2월 26일 수요일

사설

정부는 전남의대 신설 약속 속히 이행해야

정부의 ‘전남 국립의대 설립’ 약속을 지켜달라는 전남도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와 목포대, 순천대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토론회와 범도민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국립의대범도민추진위원회는 ‘국립의대 설립 추진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했다.

범추위는 결의문에서 “전남도는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에 부응하는 대학 통합까지 성사시켰다”며 “이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킬 차례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대타협을 하되,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의료 개혁은 정부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대타협을 통해 의료문제를 해결하되, 이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반드시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남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었다.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 정부부처 역시 국립의대 설립 추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목포대와 순천대로 갈린 의과대학 유치경쟁에 하나의 대학으로 추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이라는 합의의 이뤄낸 것도 어떨게든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의지의 결과이다.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의료복지 사각지대이다.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은 열악한 지역 의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책이라는 점에서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것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

전남은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도민들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중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내년 3월 통합대학 의대 개교를 위해서는 적어도 4월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인력 수급 규모를 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바탕으로 의과 대학 입학 정원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지역 필수 의료 확충과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급한 현안이다. 정부는 당초 약속대로 국립의대가 설립되도록 신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민 쉽터 ‘공개공지’가 흡연실 전략이라니

도시민들에게 쉽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공개공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한다. 공개공지란 대지면적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공개적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에 따라 도심 속 폐적한 쉽터를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도입한 공적 기능의 공간이다.

그런데 이 공개공지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쓰레기장이나 흡연부스로 전략하면서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

현재 광주 5개 자치구에 설치된 공개공지는 총 154개소(동구 26개소, 서구 43개소, 남구 15개소, 북구 28개소, 광산구 42개소)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개공지에는 이를 표시하는 안내판도 없는 상태였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공개공지의 경우에는 건물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도심 속 쉽터가 아닌 흡연실로 전략한 곳이 적지 않다.

본보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광산구의 한 대형마트 한쪽에 설치된 공개공지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지만 무수한 담배꽂초 등 크고 작은 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져 있다. 이곳이 공개공지라는 점을 안내하는 표지판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을 쉽터가 아닌 흡연공간으로 아는 시민들이 많다.

서구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공개공지도 안내 표지판이 없고, 담배꽂초와 쓰레기가 수두룩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집회·종교·판매·운수·업무·숙박 용도의 건축물, 또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의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공개공지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조례로 공개공지 관리기준을 마련해 놓은 자치구 역시 관리감독에 소홀하다.

공개공지 도입취지에 맞는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개공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감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취재수첩

광주 성숙한 시민의식, 모범사례 되길

임영진

사회교육부 차장



최근 광주에서 가장 핫한 곳은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이 그대로 남아 있는 동구 금남로 일원이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로 ‘집회의 성지’가 된 금남로는 올해 2월8일 광주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이후 ‘이념의 격전지’가 됐다.

특히 보수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15일 진행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석방 촉구 기도회에 주최 측 추산 1만명 이상이 참여, 역대 광주에서 진행된 보수성향 집회 중 가장 많은 기록을 세웠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도 같은 날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경찰 20여개 중대가 배치되는 등 안전 문제가 제기됐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런 우려를 깨끗하게 지워냈다.

이날 집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든 광주비상행동은 성명을 통해 “돌아가기 전 따뜻하고 맛있는 남도의 음식도 맛보길 바란다. 다음에는 여행지로서 다시 방문해 광주공동체의 따뜻한 품을 느껴보시라”며 의견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보수단체들이 광주에서 집회를 강행하는 속내는 뻔하다. 분란을 만들어 이슈를 만들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숙한 광주시민들은 극우 세력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았다. 과거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피를 흘리고 희생했던 광주정신이 이념 갈등에 흔들리지 않고, 외연한 자세로 대처하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성숙한 광주 시민의식이 정치·이념적으로 다른 집회 시위를 대치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 전국에 퍼지길 기대한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여균수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8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월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